

【논문】

## 토마스 리드의 행위자 인과이론

— 행위자는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가? —

김 종 원\*

【주제분류】 근대철학, 형이상학, 인과 이론

【주요어】 토마스 리드, 행위자 인과이론, 의욕, 행동, 기회원인

【요약문】 이 논문은 리드의 행위자 인과이론에서 의욕과 행동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리드의 행위자 인과이론의 중심 원리 중에 하나는 ‘행동은 행위자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리드는 동시에 자발적인 행동에는 항상 의욕이 동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논문은 실제 이원론에 기초한 리드의 행위자 인과이론을 철저히 따르면서도 이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들의 양립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즉, 리드의 행위자 인과이론에 따르면, 첫째, 마음과 신체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오직 행위자만이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 의욕은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둘째, 리드는 인과관계를 사건 인과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의욕을 마음의 변용으로 취급함으로써 행위자와 행동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이원론으로부터 기인한 행위자의 기회원인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경험적 귀납법을 자신의 유일한 철학적인 방법으로 간주하는 리드는 반사실적 신빙성을 근거로 들어 그 가능성을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해석이 리드의 도덕이론과 행동이론에 기초가 되는 행위자 인과이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행위자 인과이론을 이전에 비해 보다 더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 서강대학교

## I. 서론

행위자 인과이론의 주창자인 리드에 따르면 각각의 자유로운 행동은<sup>1)</sup> 능동적인 능력의 발휘(exertion of active power)로써, 오직 능동적인 능력을 가진 행위자만이 이러한 행동의 실질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위자가 이러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가? 행위자는 어떠한 매개물 없이도 육체적인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행동은 항상 의욕(의지의 결정)을 따라 실행됨으로 의욕 없이 행위자가 자유로운 행동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리드 또한 우리의 신체에서 어떠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움직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의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주장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2)</sup> 그렇다면 리드에게 있어서 의욕은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마리아 알바레즈(Maria Alvarez) 또한 행위자로서 “우리는 의욕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욕은 우리의 신체의 움직임에 원인”<sup>3)</sup>이 된다는 것이 의욕과 신체의 관계에 대한 리드의 설명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의욕은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의욕의 직접적인 원인은 행위자가 됨으로 결국 리드에게 있어서 행위자란 궁극적인 행동의 원인이라는 하지만 직접적이지는 않은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드는 ‘자발적인 신체적 행동이란 능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에 의한 직접적 결과(immediate effect)’라고 명백히 주장함으로써,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욕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의 결과들은 직접적(immediate)이든지 간접적(remote)이다.

1) 리드는 물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action, 정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act 혹은 ope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Thomas Reid, *Essays on the Active Powers of man*, ed. Knud Haakonsse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0. (이하 EAP) 29, 48, 49, 69 등을 보라.

2) EAP 29-31, 32, 33 등을 보라.

3) Maria Alvarez, “Reid, Agent Causation, and Volitionism”, *Reid Studies* 4(1) (2000), 79

내 생각으로는 직접적인 결과는 두 부분으로 환원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체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둘째,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sup>4)</sup>

따라서 우리는 ‘(신체적) 행동이란 능동적인 능력을 가진 행위자에 의한 직접적 결과’라는 리드의 주장과 ‘의욕이 신체적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과 의욕의 관계에 대한 리드의 설명 사이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된다. 알바레즈 역시 이 점은 잘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능동적인 능력을 실행하는지에 관한 리드의 설명은 그의 행위자 이론에 관하여 다음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리드가 말한 바와는 다르게, ‘인간의 능동적인 능력’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의 변화를 그것의 대상으로 삼는 의욕을 직접적인 결과로 갖으며, 둘째, 우리의 신체와 정신의 변화는 그 변화를 원하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산출되므로 이 변화란 ‘우리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다. 그 변화란 기껏해야 간접적인 결과일 뿐이다.<sup>5)</sup>

즉, 알바레즈에 따르면, ‘행위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리드 자신의 명시적인 주장과는 달리, 리드의 의욕과 행동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볼 때 행위자로서 우리는 항상 의욕을 통해서만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의욕일 뿐이며 우리는 기껏해야 간접적인 원인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알바레즈는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실체 이원론에 기초한 행위자 인과이론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한다.<sup>6)</sup> 실제로 리드의 행위자 인과이론의 설명을 따라가자면 알바레즈가 파악한 것과 같은 이 두 가지 모순되는 주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처럼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주장들이 어떻게 양립 가능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4) EAP 39.

5) Maria Alvarez, “Reid, Agent Causation, and Volitionism”, 73.

6) Maria Alvarez, “Reid, Agent Causation, and Volitionism”, 81. 정신적 실체와 연장적 실체라는 두 이질적인 실체들 사이의 직접인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실체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행위자라는 정신적인 실체가 신체적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여러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행위자: 행동에 대한 진정한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

우선 리드는 의지란 행동에 항상 선행하며 행동에 항상 동반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의욕이 행동의 원인’이라거나 ‘행동이 의욕의 결과’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sup> 경험주의 전통에 속해 있는 리드에 따르면 신체의 움직임과 우리의 의욕사이에 파악 가능한 인과 관계란 없으며, 경험적인 방법(관찰과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란 단지 “우리의 신체의 특정한 움직임을 원하는 우리의 의지와 그러한 움직임을 산출하는 신경과 근육의 작용사이에는 어떠한 정립된 조화(an established harmony)가 있다”<sup>8)</sup>는 것 뿐이다. ‘의욕이 어떻게 신경과 근육위에 물리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은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섬으로 경험에 기초해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설사 우리가 의욕과 행동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정립된 조화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 의욕과 신체적 행동사이에 관찰가능한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신과 신체사이의 연결에 있어 실제적 본성이란 우리에게 숨겨져 있고 우리는 단지 그 둘 사이의 현상적인 본성만을 이해할 수 있음으로 기껏해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란 의욕과 신체적 행동 사이의 항상적 결합(constant conjunction)이라는 것이 리드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욕과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항상적 결합뿐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리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흄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

7)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의 『인간의 능동적 능력에 관한 시론』에서 의지가 행동의 원인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될만한 구절은 두 부분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EAP 40, 41을 보라.

8) EAP 40.

적으로 필연적 인과관계라고 간주하는 선후의 두 사건의 관계 역시 경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항상적 결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항상적 결합 이외에 의욕과 행동사이의 관계에 대해 리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가? 의욕과 행동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은 리드의 지각이론으로부터 유추하여 찾아 볼 수 있다. 즉, 의욕과 행동사이의 관계란 기본적으로 심신관계이고 외부대상에 대한 지각 작용 역시 심신관계에 기초되어 있으므로 리드의 지각이론을 살펴본다면 동일한 관계성에 기초한 의욕과 행동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리드의 지각이론을 다루기 전에 소위 관념의 길(the way of ideas)이라고 불리는 17-18세기의 철학적 흐름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철학적 흐름의 시작은 데카르트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근대과학관에 영향을 받은 심신 이원론자들에 있어서 ‘어떻게 비물질적인 실체로서의 정신과 물질적인 세계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그들의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이 외부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서로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연관성을 철학적으로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이 이질적인 것들-비물질적인 실체와 물질적인 실체-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한 일종의 매개물을 고안해 냈는데 이 매개물이 바로 관념(idea)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실제로 17세기 이후 계몽주의시대에는 일종의 공리로 간주될 수 있는 두 가지 가정이 있었는데, 이는 물질적인(과학적) 세계에 대한 관찰로부터 생겨난 인과관계와 연관된 믿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가정이란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인과적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there is no causal action at a distance)’는 인과의 인접성에 관한 믿음이고,<sup>9)</sup> 두 번째는 ‘동질적인 것들은 오직 동질적인 것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다(homogeneous

9) John Losee, *Theories of Causality: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11, 19-28을 보라.

things have an effect on homogeneous things)’는 인과에 있어서 동질성 요구에 대한 믿음이다. 대부분의 17-18세기 근대철학자들은 이 가정들을 참으로 받아들였는데 결국 이 가정들에 대한 신념이 심신관계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낳게 되었고, 그 가운데 지각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안물이 바로 지각자와 외부대상 사이를 중재하는 특별한 대상인 관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지각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외부대상에 대한 관념이 마음 안에 형성되는 바로 그 순간은 설명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란 실제로 심신관계에 대한 설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리드는 관념을 불필요한 고안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념의 도입은 정신이 외부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 정신이 외부대상을 파악하는 그 순간은 여전히 신비로 남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리드에게 관념이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각작용의 방해물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리드는 관념이란 매개물 없이 어떻게 외부대상에 대한 지각작용을 설명하는가? 리드의 지각이론에서 외부대상이 어떻게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각작용(sensation)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리드에게 감각작용이란 정신의 작용이기는 하지만 외부대상과 연관된 작용으로, 다른 정신작용과는 달리 그 작용의 대상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감각작용이란 마치 고통과 같은 내감(internal feeling)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 느낌자체와 느낀 것 사이가 구별되지 않듯이 반성을 통해 감각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각작용이란 어떠한 지향적 대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일종의 정신의 변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10)</sup> 그렇다면 감각작용이 일종의 정신의 변용이라는 사실이 외부대상을 파악하는 우리의 지각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간단히 지각과정을 살펴보자. 일단 외부대상이 우리의 신체적 감각기관에 물리적 인상들을 주면, 이 인상들은 우리의 신경과 뇌로 전달된

10) Thomas Reid, *Essays on the Intellectual Powers of Man*, ed. Knud Haakonsse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이하 EIP) 36, 38을 보라.

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물리적 연쇄 과정을 살펴보다라도 감각작용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각작용과 물리적 인상사이에는 어떠한 인과적 연쇄과정도 없기 때문이다. 즉, 내가 책상을 만져서 감각작용으로써 딱딱함이라는 느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딱딱함이라는 느낌’과 ‘책상이 가지고 있는 고체성의 성질’ 사이에 어떠한 유사성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각작용을 가질 수 있는가? 리드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호이론을 통해 감각작용을 설명한다. 마치 언어에 있어서 ‘책상’이라는 단어(기호)가 자의적으로 ‘네 개의 다리를 가진 네모난 평판’을 지시하는 것(기호에 의해 지시된 것)처럼 리드에게 딱딱함이라는 감각작용은 책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자연적인 기호(natural sign)로, 책상이 가지고 있는 고체성의 성질은 기호에 의해 지시된 것(thing signified)으로 간주된다.<sup>11)</sup> 즉, 책상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인과 관계없이 네 개의 다리를 가진 네모난 평판을 지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작용 역시 책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지시함에 있어서 어떠한 인과관계를 요구함 없이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 리드의 주장이다. 물론 언어에서의 기호관계는 자의적인 반면에 감각작용에서의 기호관계는 자연적임으로 두 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관계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리드는 기호라는 말과 동시에 ‘시사 혹은 연상(suggest)’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감각은 관념과 같은 매개물이 없더라도 외부대상의 성질을 자연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시사(연상)한다는 것이 리드의 주장이며, 따라서 이러한 ‘시사’의 관계에 기초한 기호와 기호에 지시되어진 것(시사되어진 것)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인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각작용과 성질 사이의 관계는 인과관계일 수 없다는 것이 리드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각작용은 항상 감각기관에 주어진 물리적 인상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물론 이 경험적 사실은 두 개의 사건사이의 항상적 결합만을, 즉 감각작용은 물리적 인상을 항상

11) Thomas Reid, *An Inquiry into the Human Mind: On the Principles of Common Sense*, ed. Derek R. Brookes.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56

뒤따른다는 것만 이야기 할 뿐이다. 우리의 경험은 물리적 인상과 감각작용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침묵한다. 오히려, 리드는 감각작용의 진정한 원인(작용인)이란 항상 감각작용과 지각작용을 실행하는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두 개가 항상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잘못된 추론은 없다. 낮과 밤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서로 항상적인 연쇄 안에 결합되어 있지만 낮이 밤의 원인이라거나 밤이 낮의 원인이라고 결론내릴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떠한(물질적인) 움직임이나 물질의 변형이 생각을 생산해야한다고 상상하는 것만큼 터무니 없는 것도 없다. [...]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 기관위의 주어진 외부대상의 인상들이 사고와 지각의 참된 작용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조리한 것이다.

감각작용과 물리적인 인상 사이에 인과적 연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상이 감각작용의 참된 원인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란 항상적 결합일 뿐, 오히려 감각적 작용의 참된 원인이란 바로 행위자라는 것이 감각작용과 물리적 인상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리드가 주장하는 바이다.

만약 감각작용과 물리적 인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리드의 설명이 위와 같다면 외부대상에 대한 감각작용과 마찬가지로 의욕을 일으켜 신체를 움직이는 것 역시 실제이원론을 바탕으로 두 개의 실제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외부대상과 감각작용 사이의 관계를 의욕과 신체 내적인 움직임(뇌, 신경, 근육의 움직임)사이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리드 역시 이 두 관계들 사이의 유비성을 인정한다.

경험은 우리에게 정신의 특정한 감각작용들은 신체에 주어진 특정한 인상들을 항상 뒤따른다는 것과, 신체의 특정한 움직임은 정신의 특정한 결정들을 항상 뒤따른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정신과 신체]을 함께 연결시키는 연쇄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 유비를 통해 우리가 의욕과 신체적 행동사이의 관계에 대해



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리적 인상이 감각작용의 원인이 아닌 것처럼 의욕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행위자가 감각작용의 직접적 원인(작용인)이듯이 우리의 행동이 항상 의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직접적 원인은 능동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바레즈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즉,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의 특정한 움직임은 원하는 우리의 의지와, 그러한 움직임을 산출하는 신경과 근육의 작용사이에는 어떠한 정립된 조화(an established harmony)가 있다는 것”<sup>12)</sup>만을 알 수 있을 뿐,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인과관계도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진정으로 신체 내적인 움직임(신경, 근육)은 의욕을 항상 동반한다는 사실(항상적 결합)일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 항상적 결합을 넘어서 의욕과 행동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지성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일 것이다.<sup>13)</sup> 의욕과 자발적인 신체의 움직임 사이가 인과관계에 기초한 것처럼 보이고 의지가 이 신체의 움직임의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둘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인 인과관계란 없으며, 행위자가 감각작용의 참된 직접적인 원인이듯이 우리의 행동의 참된 직접적 원인은 행위자라는 것이 리드가 행위자 인과이론을 통해 주장하는 바이다.

### III. 행동은 행위자 원인의 결과인가, 의욕의 결과인가?

하지만 의욕과 행동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으며, 행동은 의욕이 아닌 행위자 원인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이 알바레즈가 제기한 행동과 의욕의 관계에 대한 리드의 설명의 불일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

12) EAP 40.

13) EAP 40.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리드는 몇몇 구절에서 우리 신체의 움직임이 의욕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들이 그것을 원하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산출되는지 모른다. [...] 이러한 정신의 행위[의욕]가 신경과 근육위에 어떠한 물리적인 결과(physical effect)를 초래했는지 아니면 의욕이란 정초된 자연법칙에 따라 어떤 다른 작용인에 의해서 움직여진 신경과 근육에 대한 단지 하나의 계기(occasion)일 뿐인지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sup>14)</sup>

따라서 리드가 의욕이 아닌 행위자가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타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왜 리드가 몇몇 구절에서 ‘행동은 의욕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는 것처럼 주장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리드는 왜 ‘행위자가 행동의 참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행동이 의욕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리드가 인과와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할 때, 엄격한 의미와 일반적인(대중적인)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리드는 결과(변화)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과<sup>15)</sup> 그 변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만을 엄격한 의미에서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오직 행위자만이 이러한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건들 사이에 나타나는 사건 인과의 원인들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변화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없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원인이 될 수 없다. 리드가 행동과 비자발적인 신체적인 움직임을 구별하여 오직 양면적 능력의 결과만을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14) EAP 40 혹은 다음의 구절을 보라. “결과를 산출하는 의지와 그것의 산출사이에 어떠한 다른 행위자나 도구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EAP 41.

15) 리드에게 어떠한 특정한 능력이란 그 특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동시에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양면적인 능력(two-way power)을 말한다. 따라서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수동적 능력, 예를 들어, ‘물은 소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의 단면적 능력(one-way power)은 리드에게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아니다. EAP 102를 보라.

엄격한 의미로 원인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는 ‘인과’, ‘원인’, ‘행동’, ‘결과’ 같은 단어를 행위자 인과이론에 국한해서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단어가 행위자 인과이론에서만 참되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리드는 종종 대중적인 의미에서, 즉 사건인과적인 의미에서도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한다.<sup>16)</sup> 리드가 인과와 관련된 단어들을 이처럼 이중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왜 리드가 ‘행동은 의욕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즉, 위의 인용 구절에서 ‘결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리드는 대중적인 의미에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7)</sup> 행위자 인과이론에 따르면(즉,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행동으로서의 사건은 오로지 행위자 원인의 결과이며 의욕과 행동사이에는 경험에 의해서 발견 가능한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드가 의욕을 발생시킨 순서상 행위자와 신체 행동사이에 위치시킴으로써 행동을 의욕이라는 사건의 결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했다면, 그러한 표현은 리드가 행위자 인과가 아닌, 사건 인과를 인정하는 대중적인 의미에서 ‘결과’ 개념을 사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리드가 “의욕이 신경과 근육위에 어떠한 물리적인 결과(physical effect)를 초래”했는지에 관해 물을 때 리드는 사건 인과적 관점에서 결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리드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의욕과 신체적 행동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행위자만이 우리의 신체적인 행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구절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써 ‘우리의 신체적 행동들은 의욕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알바레스가 파악한 리드의 또 다른 문제, 즉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직접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즉, 리드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경험이 의욕과 행동사이에 발견되는 것은 인과적 관계가 아닌 항상적 결합이라고 주장함에도 불

16) EAP 38-42, 48, 60쪽을 보라.

17) EAP 39-42쪽을 보라.

구하고 의욕이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행동이 항상 이 의욕의 결정을 따른다면 대중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은 인과관계에 다름 아니므로 행동이란 행위자가 아닌 의욕의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리드가 “인간의 능력의 결과들은 직접적(immediate)이든지 간접적(remote)”이라고 주장할 때도 대중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처럼 보인다. 능력을 발휘하는 행위자가 사건의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행위자와 행동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성을 전달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간접적 결과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것이다. 따라서 리드가 간접적인 원인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자만이 결과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중적인 의미(사건인과적인 의미)에서도 행위자가 우리의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알바레즈가 ‘리드에게 있어서 행동이란 의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의욕과 행동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사건 인과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행위자가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 의욕이 행동에 선행되고 행동에 항상 동반되므로 알바레즈는 행동을 의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행동이 대중적인 의미에서 조차 행위자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는가? 행위자는 단지 행동의 궁극적 원인일지는 모르지만 간접적 원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리드의 대답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우리는 리드의 지각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념(idea)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외부세계를 파악하는 표상적 실재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리드는 우리가 관념이라는 심적 매개물 없이 외부대상을 직접적으로 지각한다고 주장한다. 리드의 지각이론이 관념과 같은 심적인 매개물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리드는 지각작용이 또 다른 정신적 작용으로써의 감각작용을 항상 동반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인다.<sup>18)</sup> 외부대상이 우리 앞에 주어지면

18) 지각작용이 항상 대응하는 감각작용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그 외부대상의 물리적 성질을 받아들이고, 감각작용은 즉각적으로 이 성질을 시사(연상, suggest)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감각작용은 지각작용에 동반된다. 이 때 감각작용의 결과는 어떠한 심적인 대상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각작용(conception)이란 느낌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일종의 마음의 변용(a modification of mind)이므로 지각작용이 *감각작용 자체*를 지각작용의 대상으로 삼아서 지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각작용으로 인한 특정한 상태에 있는 정신이 외부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각작용을 실행한다. 따라서 감각작용은 외부대상에 대한 지각작용의 심적 매개자가 아니며, 우리의 지각작용은 감각작용을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대상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 마음에 외부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다.

리드에게 있어서 지각과정의 설명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안의 감각작용과 지각작용사이의 관계를 행위자와 의욕과 행동사이의 관계에 유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겠다. 즉, 우리가 의욕을 감각작용이나 감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마음의 변용으로 간주한다면, 의욕과 행동사이의 관계를 사건인과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없이 의욕을 특정한 마음의 상태로 소유한 행위자가 우리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비적 접근은 크리스 린제이(Chris Lindsay)가 리드의 의욕과 행동사이의 간격을 매우기 위해서 ‘내적 기제(internal mechanism)’<sup>19)</sup>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감각작용이 외부세계에 접속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로크나 다른 사람들의 간접적 실재론에 대한 리드의 거절을 위태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우리는 감각작용을 가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외부대상을 지각할 수 있고 적합한 의욕을 발생시킴으로써 우리 신체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sup>20)</sup>

19) Chris Lindsay, “Reid on Scepticism about Agency and the Self”, *The Journal of Scottish Philosophy*, 3(1) 2005, 29.

20) Chris Lindsay, “Reid on Scepticism about Agency and the Self”, 28.

린제이는 더 나아가 ‘행동(신체 내적 움직임)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결과들’이라고 말할 때 그 직접적이라는 의미의 경계는 신체와 정신 사이에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신체를 모두 가진 행위자와 외부세계 사이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는 리드의 다음의 문장을 인용한다.

해부학자들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모든 자발적인 신체의 움직임은 특정한 근육들의 수축에 의해서 실행되고 그 근육들은 신경으로부터 전달되는 특정한 영향에 의해서 수축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육이나 신경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외부적 결과들을 생산하고, 우리의 요청이 없더라도 내적인 절차들(internal machinery)은 이 외부적인 결과를 즉각적으로 산출한다.<sup>21)</sup>

린제이에 따르면 리드는 경험에 의해서 마음과 내적인 신체기관(신경과 근육)사이에 소위 내적인 기제(internal mechanism)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기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모종의 내적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내적인 기제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되려면 행위자란 단지 정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라는 주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아가 정신하고만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신체를 포함하는 내적인 기제란 불가능하겠지만, 자아가 신체와 정신의 결합체라고 가정한다면 의욕과 신체 내적인 움직임을 포함하는 내적인 기제가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sup>22)</sup> 이처럼 행위자와 신체적 움직임 사이가 내적인 기제로

21) EAP 40.

22) 17-18세기 당시 근대철학자들이 인격이나 자아를 정신과 동일시하는 데 반해 리드는 인격(자아, 행위자)을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로 간주하고 그 본질적인 특징을 ‘생명있음’으로 보았다. 김종원, 「리드의 인격 개념」, 『철학탐구』 제39집, 2015.8, 133-157을 보라. 물론 자아가 신체와 정신의 결합체라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이러한 내적인 기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의욕이 하나의 심적 매개물일 경우, 그래서 의욕이 신체내적 움직임(신경과 뇌의 움직임 같은)의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에는 행위자와 행위자의 행동사이에 의욕이라는 매개자가 존재하게 되므로 참된 의미에서 행위자와 신체내적 행동 사이가 내적인 기제로 묶여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묶여 있다면 ‘행동이란 행위자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주장과 ‘행동은 항상 행위자의 의욕을 잇따른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하게 된다. 의욕과 신체 내적인 움직임이 내적인 기제로 묶여 있다는 조건 아래에서 행위자는 ‘의욕을 항상 동반하는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린제이가 해석한 리드의 주장이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욕을 마음의 특정한 하나의 상태로 소유한 행위자가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리드에게 있어서 의욕이 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이란 행위자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

#### IV. 기회원인의 가능성

그러나 행위자만이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할 경우, 거기에는 또 다른 고려할 사항이 존재한다. 그것은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다른 행위자가 인과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리드는 행위자 인과이론을 주장하면서 의욕이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행위자가 원인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마음과 신체 사이에는 화해 불가능한 이분법이 있어 상호 인과관계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과 신체의 실제 이원론적 입장은 그 이분법으로 인해 마음이 아닌 다른 원인의 존재 가능성을 항상 내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리드 역시 경험적으로는 전혀 지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가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의욕이란 정초된 자연법칙에 따라 어떤 다른 작용인에 의해서 움직여진 신경과 근육에 대한 단지 하나의 계기(occasion)일 뿐인지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결과[신체적 움직임]를 산출하는 의지와 그것의 산출물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위자들이나 도구들이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는 직접적이 결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sup>23)</sup>

즉,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행위자의 마음과 행동사이에 항상적 연결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진정한 원인(신 혹은 다른 작용인)이 있어, 실제로는 행위자의 의욕과 신체적 움직임 사이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에도 우리가 의욕을 품을 때마다 이 참된 작용인이 행위자의 의욕과 신체적인 움직임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행위자는 기껏해야 기회 원인일 수밖에 없게 되므로 ‘행위자가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리드의 주장은 참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리드는 이 두 주장, 즉 ‘행위자와 신체적인 움직임사이에 다른 행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장과 ‘행위자가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주장을 어떻게 양립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

정신과 신체라는 두 이질적인 실체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의 요구는 실체 이원론자들을 오래 동안 괴롭힌 질문들 중에 하나였다. 실체 이원론자이자 직접실재론자인 리드 역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내적인 기제로 묶여 있는 관계로 보면서도 이 관계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행위자인 우리가 우리의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아는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와 우리의 행동사이에 다른 작용인들(신 혹은 다른 행위자들 같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우리에게 마음과 신체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본성도 알려주지 않으므로, 리드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했다면 그것은 경험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가설적 가능성(hypothetical possibility)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리드는 이러한 가설적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리드는 아마도 그 당시 있었던 회의주의-특히 도덕적 책임과 행위자 인과에 대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타진했을 수 있다. 당시 행위자 인과에 대한 회의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마음과 신체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본성도 알지 못하므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신체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행위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 역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리드는 회의주의의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기회원인에 대한 가설적인 혹은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능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회의주의의 공격을 무화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설적 가능성에 대한 리드의 대답은 무엇인가? 우선 리드가 이러한 가설적 가능성을 다룰 때 ‘행위자로서의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의 의욕은 이러한 자유의 결정’이라는 조건하에서 이 가능성을 다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리드는 우리가 직접적인 행위자이든지 아니면 단지 기회원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만약 우리가 의지의 자유를 가진 기회원인일 경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 사이에 진정한 작용인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가설적인 주장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만약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사이에 다른 매개자가 있어 그 매개자가 우리의 행동에 진정한 작용인이라면, 이 작용인은 자신의 자유를 가진 채 기회원인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작용인의 결정과 기회원인으로서 우리의 결정사이에 아무런 인과적 연결이 없으므로 기회원인으로서 우리의 결정은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결국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결정이 아닌, 우리의 결정과 행동사이에 있는 다른 진정한 작용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므로, 매개자로서 다른 작용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인과적 영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행동과 의지의 결정사이에 진정한 원인으로써의 다른 행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욕과 행동사이에 다른 행위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란 우리의 행동은 예외 없이 항상 우리의 의욕을 따른다는 것뿐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닌 매개자로서의 작용인이 우리의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참이라 할지라도, 현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란 우리의 신체를 움직일 능력은 행위자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회원인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게 현상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행동에 원인은 항상 행위자로서 우리일 뿐이다. 린제이 역시 반사실적 신빙성(counterfactual relia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와 동일한 주장을 펼친다.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욕구되어진 사건이 신빙적으로 그 사람의 의욕에 뒤따른다면, [신체적] 움직임의 정지가 그 움직임을 멈추려는 그 사람의 시도에 체계적으로 뒤따른다면, 그리고 이것이 모든 연관된 반사실적 가정문에서 참이라면, 그 연관된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보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을 것이다.<sup>24)</sup>

설사 어떤 행위자가 단지 기회원인에 불과하며, 이 기회원인으로서 행위자와 그 사람의 신체의 움직임사이에 다른 진정한 작용인이 있다하더라도 그 움직임이 기회 원인인 그 사람의 의욕을 항상 따른다면 우리는 이 움직임에서 실제 작용인의 영향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회원인론의 대표자인 말브랑슈의 신 개념에도 잘 나타난다. 말브랑슈에 따르면, 참된 작용인으로서의 신은 기회원인으로서의 우리와 우리의 신체적인 움직임 사이의 대응을 바꾸거나 방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신의 영향은 항상 이러한 대응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마치 법칙과도 같이 나타난다.<sup>25)</sup> 작용인으로서의 신의 결정이 항상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참된 작용인으

24) Chris Lindsay, "Reid on Scepticism about Agency and the Self", 30.

25) 모든 신체적인 사건들이 개별적이라고 하더라도, 말브랑슈에게 우리의 신체적인 움직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의 의욕은 일반적인 의욕이다. 하지만 이 신의 일반적인 의욕은 신이 창조시에 만든 일반 법칙과는 다른 의미에서 일반적이다. 신체가 움직인다면, "이것은 개별적인 계기에 대한 신의 별개의 자발적 행동의 직접적 결과이다." "신은 그의 인과적이 활동이 그가 창조 시에 정한 자연의 법칙에 일치하며, 규칙적이고 질서 잡힌 한에서는 일반적인 의욕을 통해서 행위한다. 이 인과적 활동은 모든 개별적인 사건들과의 관계에서 법칙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이 활동이 비규정적이거나 일반적인 사건들을 결정할 수 있는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Susan Peppers-Bates, *Nicolas Malebranche Freedom in an Occasionalist World*, London: Continuum, 2009, 38

로서의 신이 또한 기회원인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 바로 그 신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이 기회원인의 의욕과 그 행동사이를 항상 간섭한다면 신이 기회원인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말브랑슈에게 있어서 신은 진정한 작용인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원인의 의욕과 행동사이를 조화롭게 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항상 기회원인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이것이 왜 말브랑슈가 기회원인론을 자신의 철학적 주장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기회원인의 책임성을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기회원인의 책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를 가정해 보자. 19살인 아들의 결정을 항상 존중해주는 관대한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생일선물로 중고차를 첫차로 받기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차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차를 골라야 오래 동안 탈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기에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차를 외견상 멋지다는 이유를 들어 골랐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차에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차를 사기를 원했다. 차를 사주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달려있고 아버지는 그 차가 곧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그 차를 사주었다. 그리고 예견한 것처럼 그 차는 곧 문제를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 문제 있는 차를 산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아버지인가 아니면 아들이나? 그 차를 실제로 산 것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아들이 져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의 예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란 가설적으로 우리가 우리 신체의 움직임에 기회원인일지라도 우리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체적 움직임이 항상 우리의 의욕을 따른다면, 적어도 경험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에서는 이 움직임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라고 말해야 하며 우리는 그 움직임에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리드가 “가장 엄격한 도덕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sup>26)</sup> 왜냐하면

26) EAP 41.

우리가 우리의 의욕과 행동사이에 다른 작용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형이상학적인 가설적 상황 하에 있더라도 그 작용인이란 실제로 인간의 “행위에 어떠한 인과적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27)</sup>

이제 우리는 이 가설적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생겨난 리드의 주장안의 모순가능성에 대해 다룰 수 있겠다. 즉, 이 가설적 가능성의 조건하에서는 기회원인으로서의 우리는 우리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일 수 없고, 오히려 우리와 우리의 신체사이에 있는 어떤 다른 작용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리드가 “우리의 행동이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할 때,<sup>28)</sup> 그는 이러한 가설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본 리드의 또 다른 주장인 “인간의 능력의 결과는 능동적 능력이든지 지적인 능력이든지 간에 직접적이다”<sup>29)</sup>라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된다. 이 두 주장을 모순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용되는 ‘직접적’(immediate)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다른 문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는 현상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직접성을 바라 볼 수도 있고, 형이상학적이고 가설적인 차원에서 직접성을 바라볼 수 있다. 리드가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immediate effects)”라고 주장할 때 ‘직접적’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의식이나 경험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현상적 혹은 경험적 직접성을 의미한다. 반면에 리드가 “우리의 행동이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즉, 행위자로서 우리와 우리의 행동사이에 신과 같은 다른 행위자가 있을 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을 때의 ‘직접적’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의식과 경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가설적 혹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리드의 두 모순되어 보이는 명제가 동일한 관점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리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직접성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

27) EAP 41.

28) EAP 40.

29) EAP 39.

그렇다면 굳이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가설적인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리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인가? 리드가 실제로 이러한 설정이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하다고 믿었는가? 리드의 철학이 경험에 기초한 귀납적인 방법만을 철학함의 유일한 방법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리드가 귀납적인 방법과 무관한 이러한 가설적 상황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sup>30)</sup> 리드에게 있어서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리드는 이러한 가설적 가능성을 앞서 살펴본 ‘관념(idea)’의 가정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관념의 가정이 마음의 작용 중 어떤 것도 더 낮게 이해시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기회원인의 가정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데 전혀 유용하지 못하다고 리드는 생각한다. 우리가 자유원인이기만 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 있는 자이므로 기회원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라고 리드는 주장한다.

나는 이 논쟁 [기회원인과 실제 작용인에 대한]이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어떤 하나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은 무의한 일일 것이다.<sup>3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적 가정을 통해서 리드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 즉, 우리의 경험이 말하고 있는 것이란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움직임에 원인이며 어떤 경우여라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실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우리의 행동이 가

30) 리드는 누구보다도 베이컨, 뉴턴 식의 귀납법을 자신의 유일한 철학방법으로 채택하여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가정에도 기초하지 않은 철학적 방법론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형이상학적 가정’으로서의 명제들과 소위 ‘상식’이라고 불리는 명제들 사이의 분리이고, 리드는 오직 이러한 상식에 기초한 진리와 귀납적 방법만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세우려고 시도한다. EIP 80, 121, 457, Thomas Reid, *The Correspondence of Thomas Reid*, ed. Paul Wood.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140 와 Shannon Dea, “Thomas Reid’s Rigourised Anti-Hypotheticalism” *Journal of Scottish Philosophy* 3(2) (2005), 127을 보라.

31) EAP 41-42.

장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능력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리드의 표현은 오직 가설적인 사고실험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주장은 결코 경험에 기초한 귀납의 방법을 통해서 증명될 수 없다. 리드가 실제로 믿었던 것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자신의 능동적인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리드의 행위자 인과이론의 중심 원리 중에 하나인 ‘행동은 행위자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에는 항상 의욕이 동반된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 여러 가지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실체 이원론에 기초한 리드의 행위자 인과이론을 철저히 따르자면 마음과 신체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오직 행위자만이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 의욕은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리드는 인과관계를 사건 인과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의욕을 마음의 변용으로 취급함으로써 행위자와 행동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체 이원론으로부터 기인한 행위자의 기회원인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경험적 귀납법을 자신의 유일한 철학적인 방법으로 간주하는 리드는 반사실적 신빙성을 근거로 들어 그 가능성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해석이 리드의 도덕이론과 행동이론에 기초가 되는 행위자 인과이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행위자 인과이론을 이전에 비해 보다 더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종원. 「리드의 인격 개념」, 『철학탐구』 제39집, 2015.8, 133-157.
- Alvarez, Maria. “Reid, Agent Causation, and Volitionism”, *Reid Studies* 4(1) (2000): 69-87.
- Dea, Shannon. “Thomas Reid’s Rigourised Anti-Hypotheticalism” *Journal of Scottish Philosophy* 3(2) (2005): 123-138.
- Lindsay, Chris. “Reid on Scepticism about Agency and the Self”, *The Journal of Scottish Philosophy*, 3(1) (2005): 19-33.
- Losee, John. *Theories of Causality: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11.
- Peppers-Bates, Susan. *Nicolas Malebranche Freedom in an Occasionalist World*, London: Continuum, 2009.
- Reid, Thomas. *An Inquiry into the Human Mind: On the Principles of Common Sense*, ed. Derek R. Brookes.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 \_\_\_\_\_. *Essays on the Intellectual Powers of Man*, ed. Knud Haakonsse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The Correspondence of Thomas Reid*, ed. Paul Wood.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Essays on the Active Powers of man*, ed. Knud Haakonsse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0.

ABSTRACT

## Reid on Agent Causation

Kim, Jong-Won

Reid claims that actions are the immediate effects of agents who have active power and at the same time claims that our volitions directly cause our bodily actions. Therefore, there is some inconsistency between Reid's two different claims. Maria Alvarez claims that this inconsistency appears to be an inevitable result of combining the agent causation theory of action with substance dualism. I will argue that this inconsistency can be resolved through a correct understanding of Reid's notion of direct agency.

**Subject Class:** Modern Philosophy, Metaphysics,  
The Theory of Causation.

**Keywords:** Thomas Reid, Volition, Action, Occasional Cause,  
Agent-Causal Theory